





# 경제 동향

- **요 약**
- **경 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외국인투자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세 크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1.8(2000=100)으로, 중공업과 경공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0.4%, 5.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7%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li> </ul> </li> <li>○ 5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224억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5%, 11.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5% 증가함</li> </ul> </li> <li>○ 6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0%로 전국의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임</li> </ul> </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63.1%로 남자는 75.1%, 여자는 51.8%임</li> </ul> </li> <li>○ 6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497만2천명으로,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li> </ul> </li> <li>○ 6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3.6%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4%p)는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li> </ul> </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2,7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함</li> <li>-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및 재개발주택, 관공서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95.6%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22.9% 증가함</li> </ul> </li> <li>○ 6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2%p 증가함</li> <li>- 6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0.3%)과 단독주택(0.2%)은 상승한 반면, 아파트(0.0%)는 보합을 나타냄</li> </ul> </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전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74조 6,257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4,606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7,863억원)보다 감소함</li> </ul> </li> <li>○ 6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부도업체 수 증가, 어음부도율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1,692개) 보다 89개(5.3%) 증가한 1,781개임</li> <li>- 6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5개) 보다 8개 증가한 63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하고,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li> </ul> </li> <li>○ 6월 기준 KOSPI 지수 계속되는 사상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중 KOSPI 지수는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의 지속, 북핵리스크 완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며 한때 1,800p를 돌파함(1,807.9p, 6.19일)</li> <li>-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등 글로벌 증시의 조정, 증권사 개인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월 후반 다소 조정되어 1,743.6p로 마감함</li> </ul> </li> </ul>

## | 생 · 산 |

5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크게 둔화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 5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와 내수지표 개선 등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17.7%), 기계장비(에어컨, 굴착기, 9.8%), 자동차(승용차, 자동차부품, 6.8%) 등의 생산확대가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크게 둔화

- 5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1.8(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하여 전월(-18.9%)에 크게 떨어진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
-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 기타 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크게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자동거래단말기, 96.8%) 등이 증가하고, 화학물 및 화학제품(-49.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42.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6.2%), 기타기계 및 장비(-20.7%) 등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종이제품(74.7%), 가죽·가방 및 신발(8.7%) 등이 증가하고, 섬유제품(-14.8%), 음료료품(-11.3%)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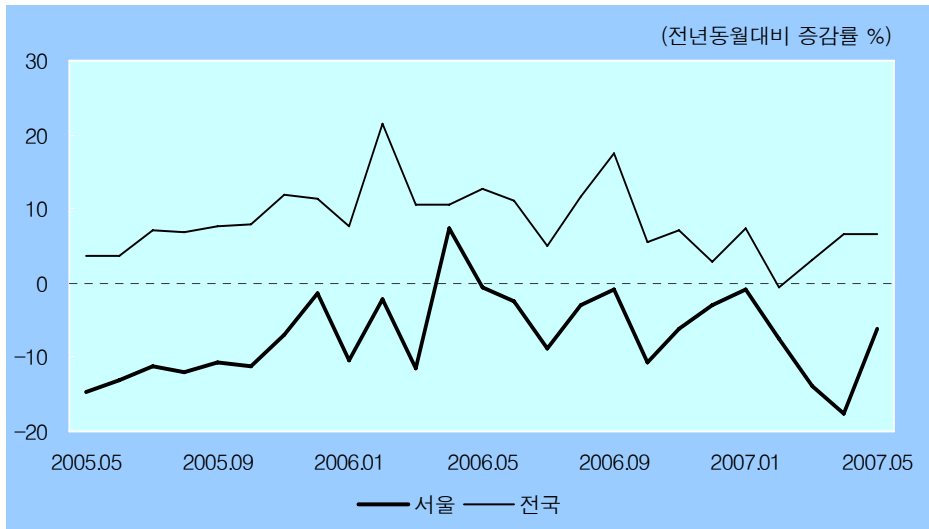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2.6 (1.2)	7.5 (1.3)	-0.6 (0.2)	3.1 (-0.3)	6.7 (3.1)	6.6 (0.9)
	서울 (제조업)	-0.9 (-20.2)	0.3 (-14.7)	-7.6 (-13.5)	-14.7 (9.8)	-18.9 (7.6)	-6.7 (-8.2)
	중공업	-9.2 (-47.6)	6.7 (-14.2)	-16.7 (-19.3)	-25.5 (2.9)	-44.1 (29.2)	-10.3 (-15.2)
	경공업	2.5 (-0.5)	-1.9 (-14.8)	-4.0 (-11.4)	-10.6 (12.8)	-0.8 (0.1)	-5.3 (-5.0)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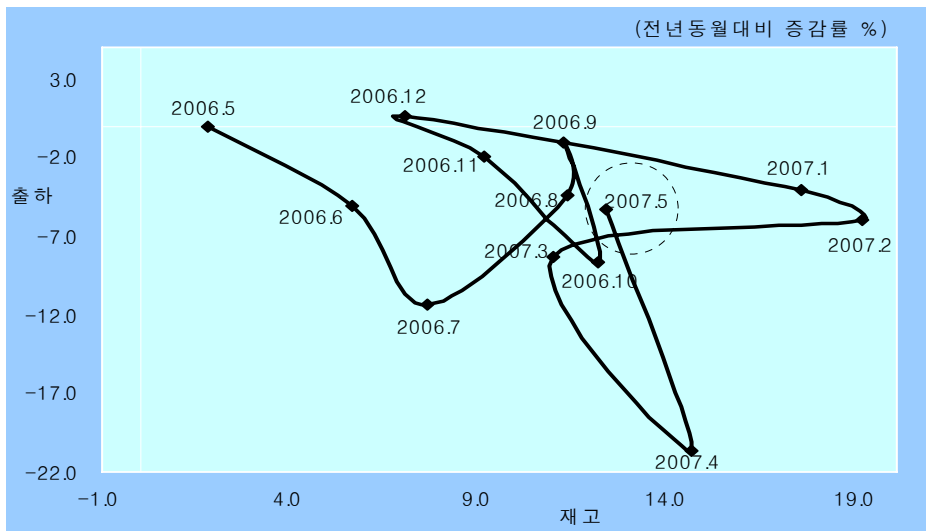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5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세 둔화, 재고 증가세 둔화
  - 5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하고, 재고는 12.3%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재고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대폭 상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는 소폭 하향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소폭 상승

- 5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1.3%로 전월대비 1.8%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88.4%로, 전월 보다 1.5%p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0.2%p 하락한 216.2%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소폭(4.8%p) 상승한 177.2%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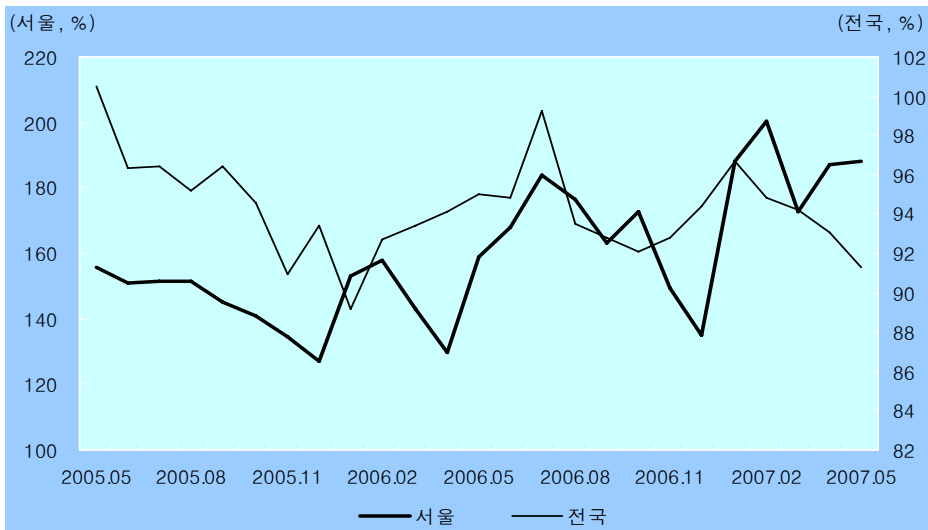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재고율	전국	95.0	96.7	94.8	94.3	93.1	91.3
	서울 (제조업)	158.7	187.9	200.3	172.7	186.9	188.4
	중공업	120.4	219.8	233.9	169.8	226.4	216.2
	경공업	172.1	176.5	187.6	172.2	172.4	177.2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5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소폭 상승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지속

- 5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9,21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됨
- 전년동월대비 증가는 컴퓨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무점포판매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함
- 백화점은 가전제품, 가구,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 1.6% 감소함
- 대형마트는 가전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상승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22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1.5%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11.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5%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패션 및 아동용품 수요증가 및 여름 성수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신규사업체 증가 및 일부 대형마트 리모델링 이후 재오픈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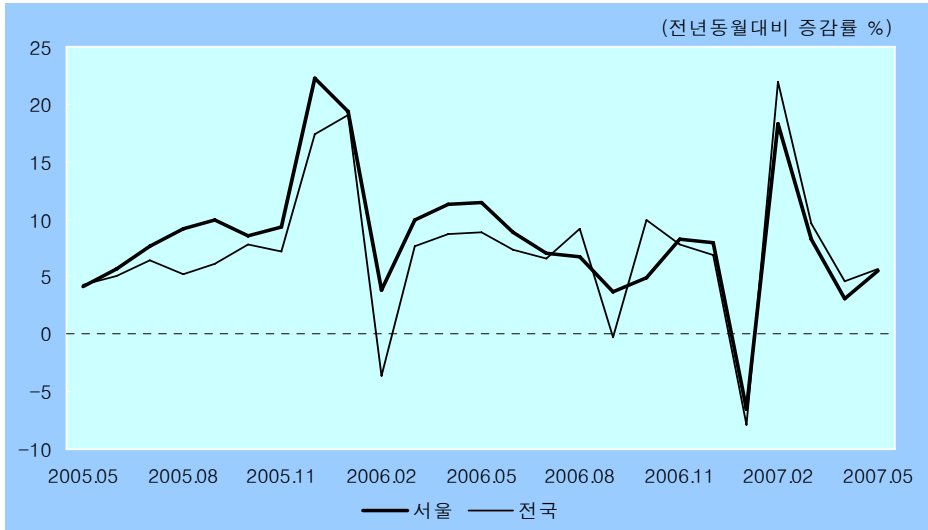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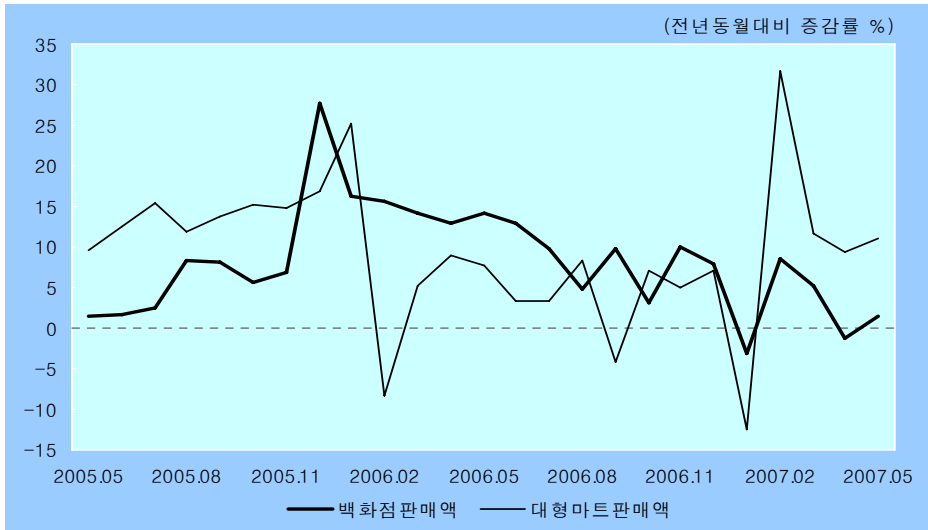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판매액	전국	3,710.9 (8.8)	3,679 (-7.8)	3,939.6 (21.9)	3,887.1 (9.7)	3,838.0 (4.6)	3,921.4 (5.7)
	서울	1,253.5 (11.5)	1,254 (-6.5)	1,271.1 (18.3)	1,313.0 (8.2)	1,311.6 (3.1)	1,322.4 (5.5)
	백화점	723.1 (14.1)	725 (-3.1)	661.0 (8.6)	739.4 (5.2)	750.8 (-1.3)	733.9 (1.5)
	대형마트 (할인점)	497.4 (7.8)	485 (-12.5)	568.2 (31.7)	525.2 (11.7)	524.6 (9.4)	552.2 (11.0)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6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포함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포함

- 6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0%로 포함을 나타냄
- 이는 농축수산물(-1.2%)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0.2%)와 집세(0.1%)는 상승하고, 공공서비스(0.0%)와 개인서비스(0.0%)는 포함을 보인데 기인함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포함

- 6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0%로 포함을 나타냄
- 전국의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6월 평균 물가상승률(-0.1%)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6%), 교양·오락(-0.2%), 통신(-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외식 및 숙박(0.2%), 교통(0.1%), 기타잡비(0.3%) 부문은 상승함

## ■ 상품부문은 하락, 서비스부문은 포함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서비스부문은 0.0%로 포함을 나타냄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1.1% 하락하고,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영향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화장품 가격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월세부문이 올라 0.1% 상승하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포함을 보이며, 개인서비스는 택배이용료, 공동주택관리비 등은 내렸으나, 외국어학원비, 삼계탕 등이 올라 전월대비 0.0%로 포함을 보임

## ■ 신선식품지수 큰 폭으로 하락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달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과 기타신선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2% 하락하여 지난달(-2.7%)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0.5%p) 확대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월 비	전국	-0.2 (2.4)	0.2 (1.7)	0.7 (2.2)	0.6 (2.2)	0.4 (2.5)	0.1 (2.3)	0.0 (2.5)	
	서울	-0.2 (2.2)	0.2 (1.8)	0.6 (2.1)	0.6 (2.3)	0.5 (2.6)	0.1 (2.5)	0.0 (2.8)	
	상품 성질별	상품	-0.4 (1.8)	0.1 (0.2)	1.1 (1.3)	0.1 (1.7)	0.5 (1.9)	0.2 (1.5)	-0.2 (1.8)
		서비스	0.0 (2.4)	0.3 (2.6)	0.4 (2.5)	0.9 (2.6)	0.4 (2.9)	0.0 (2.4)	0.0 (3.1)
	생활물가	-0.1 (3.2)	0.1 (1.9)	0.8 (2.2)	1.1 (2.6)	0.7 (3.2)	0.2 (3.5)	-0.1 (3.5)	
	신선식품	-5.8 (-1.8)	0.6 (-3.1)	6.8 (4.0)	-1.8 (2.6)	0.7 (3.4)	-2.7 (4.6)	-3.2 (7.4)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외 · 국 · 인 · 투 · 자 |

## 2/4분기 기준 서울의 외국인투자 전년동기대비 감소

- 2/4분기 외국인투자는 2006년도 2/4분기에 비해 투자건수는 증가했으나 투자금액은 감소
  - 투자건수는 전국이 전년동기(746건)에 비하여 18.6% 증가한 885건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281건) 대비 20.3% 증가한 338건으로 나타남
  - 투자금액은 전국이 전년동기(27억700만불)에 비하여 34.8% 감소한 17억6,400만불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20억6,800만불) 대비 61.1% 감소한 8억400만불로 나타남
  - 전년도 2/4분기에는 1억불 이상 대규모 투자가 2건(4.5불 1건, 10억불 1건) 있었으나 올해 2/4분기에는 2.5억불 규모의 투자 1건에 그침
  
- 산업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89.6%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8.8%, 기타분야가 1.6%를 차지
  - 제조업의 경우 7,100만불로, 전년동기(9,800만불) 대비 27.6% 감소함
  - 서비스업의 경우 7억2,000만불로, 전년동기(19억2,100만불) 대비 62.5% 감소함
  - 기타분야의 경우 1,300만불로, 전년동기(4,900만불) 대비 73.5%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이 전체 투자금액의 39.9%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서비스업 18.7%, 문화오락 11.2%, 도소매(유통) 9.8%, 전기전자가 4.4%로 나타남
  - 금융·보험의 경우 3억2,100만불로 전년동기(16억9700만불) 대비 81.1% 감소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1억5,000만불로 전년동기(5,200만불) 대비 188.5% 증가
  - 문화·오락의 경우 9,000만불로 전년동기(1,900만불) 대비 373.7% 증가
  - 도소매(유통)의 경우 7,900만불로 전년동기(2,800만불) 대비 182.1% 증가
  - 전기전자의 경우 3,500만불로 전년동기(1,900만불) 대비 84.2% 증가

■ 지역별로는 EU가 3억4,100만불로 전체 투자금액 중 42.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케이만군도 2억6,700만불(33.2%), 미국 5,900만불(7.3%), 일본 5,600만불(7%)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 주요 투자유치 권역인 미국, EU로부터의 투자가 모두 감소

- EU의 경우 전년동기(17억5,300만불) 대비 80.5% 감소
- 미국의 경우 전년동기(1억400만불) 대비 43.3% 감소
-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9,200만불) 대비 39.1%가 감소
- 특이할 만한 점은 케이만군도에서의 투자 급증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천불)

구 분	2006년 2/4분기		2007년 2/4분기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업	0	0	0	0	-	-
제조업	31	98,506	30	70,862	-3.2	-28.1
식 품	0	0	0	0	-	-
섬유직물의류	4	5,202	0	0	-100.0	-100.0
제지목재	0	0	0	0	-	-
화 공	3	620	1	160	-66.7	-74.2
의 약	1	35,800	1	25,800	0.0	-27.9
비금속광물	1	2,182	0	0	-100.0	-100.0
금 속	1	781	1	54	0.0	-93.1
기계 및 장비	5	7,849	2	1,079	-60.0	-86.3
전기·전자	13	18,968	15	35,454	15.4	86.9
운송용기계	3	27,104	3	6,695	0.0	-75.3
기타제조	0	0	7	1,620	-	-
서비스업	247	1,920,921	300	719,546	21.5	-62.5
도소매(유통)	94	28,304	116	78,755	23.4	178.2
음식·숙박	6	3,297	20	18,808	233.3	470.5
운수창고(물류)	19	92,662	10	18,994	-47.4	-79.5
통 신	1	2,530	6	2,353	500.0	-7.0
금융·보험	35	1,697,286	22	320,891	-37.1	-81.1
부동산임대	10	23,533	17	27,669	70.0	17.6
비즈니스서비스업	70	52,463	83	150,140	18.6	186.2
문화오락	6	18,926	18	90,286	200.0	377.0
공공기타서비스	6	1,920	8	11,650	33.3	506.8
전기가스수도건설	3	48,516	8	13,457	166.7	-72.3
전기가스·수도	0	0	0	0	-	-
건 설	3	48,516	8	13,457	166.7	-72.3
합 계	281	2,067,943	338	803,865	20.3	-61.1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6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포함

- 6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40만2천명) 증가한 3,917만8천명이  
며, 경제활동인구는 1.1%(27만3천명) 증가한 2,459만3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74.8%, 여자는  
51.3%로 남녀모두 전년동월과 같음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포함

- 6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7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고, 경제활동인  
구는 51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63.1%로 남자는 75.1%, 여자는 51.8%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8 (0.2)	1.0 (-0.8)	0.7 (-0.2)	0.8 (1.8)	1.0 (1.6)	1.1 (0.8)	1.1 (0.2)
	서울	-0.5 (0.2)	-0.4 (0.1)	-1.1 (-1.0)	-1.1 (0.3)	0.0 (1.1)	0.7 (0.5)	0.2 (-0.3)
	남자	-0.7 (-0.5)	-0.4 (0.3)	-0.4 (-0.2)	-1.2 (0.4)	0.0 (0.8)	0.4 (0.2)	0.8 (-0.1)
	여자	-0.2 (1.0)	-0.4 (-0.2)	-1.9 (-2.1)	-0.8 (0.2)	0.0 (1.5)	0.1 (0.8)	-0.6 (-0.7)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7	60.5	60.4	61.4	62.3	62.7	62.8
	서울	63.1	62.8	62.1	62.3	63.0	63.3	63.1
	남자	74.6	74.3	74.2	74.5	75.0	75.2	75.1
	여자	52.2	51.9	50.8	50.9	51.7	52.1	51.8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6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

- 6월 전국의 취업자는 2,381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31만5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8%(1,376만6천명), 여자는 42.2%(1,005만명)로 남자와 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6%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3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 서울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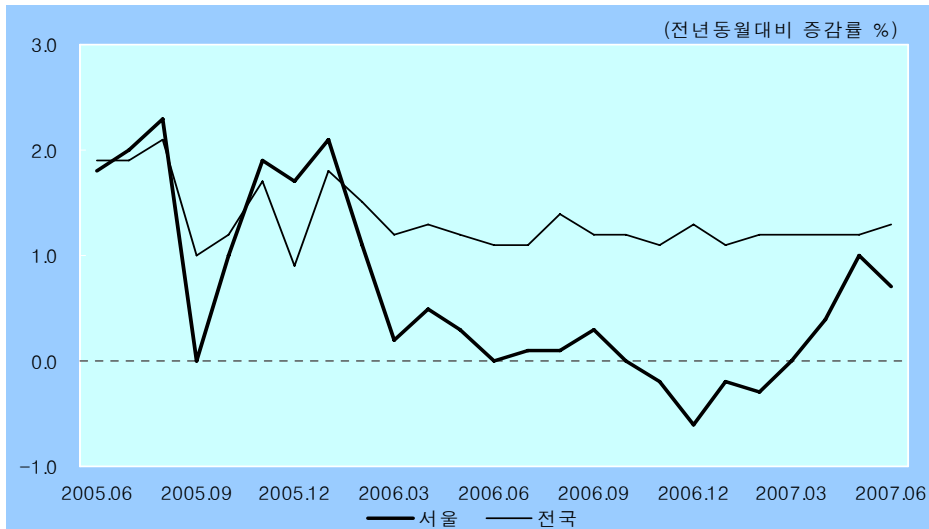
- 6월 서울의 취업자는 49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3만4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5%(285만7천명), 여자는 42.5%(211만5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3%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3%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0% 증가하고 여자는 0.3%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는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1.6%(107만2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여 전국의 감소세와 상반됨
- 전체 취업자의 14.9%(73만9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5.1%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축소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0.4%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8.7%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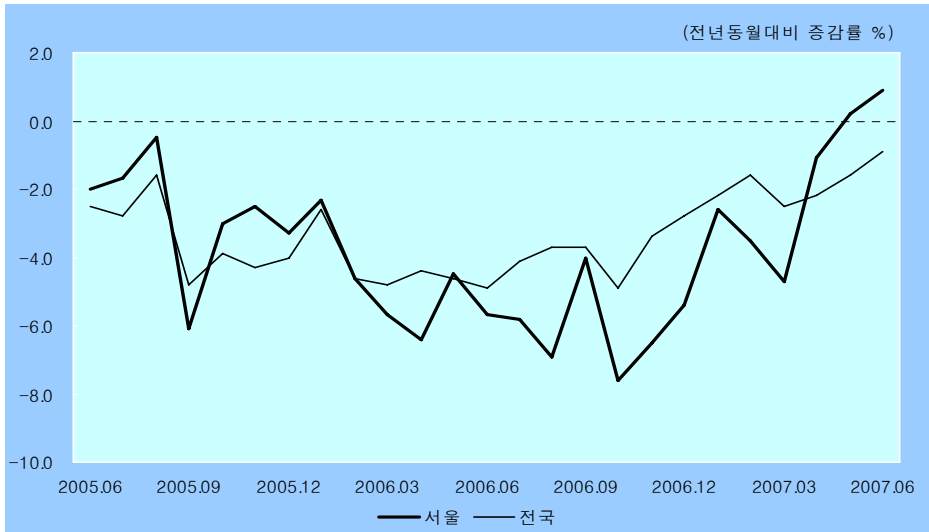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취업자	전국	1.1 (0.1)	1.1 (-1.1)	1.2 (-0.2)	1.2 (2.0)	1.2 (1.7)	1.2 (1.0)	1.3 (0.2)
	서울	0.0 (0.2)	-0.2 (-0.4)	-0.3 (-0.9)	0.0 (0.8)	0.4 (1.2)	1.0 (0.8)	0.7 (-0.1)
	남자	-0.4 (-0.5)	-0.9 (-0.4)	0.2 (0.5)	-0.4 (0.8)	0.2 (0.6)	0.6 (0.9)	1.0 (-0.1)
	여자	0.6 (1.1)	0.7 (-0.3)	-1.0 (-2.7)	0.5 (0.7)	0.8 (1.9)	1.6 (0.6)	0.3 (-0.2)
청년층 취업자	전국	-4.9 (-0.8)	-2.2 (2.2)	-1.6 (-2.1)	-2.5 (-2.2)	-2.2 (0.6)	-1.6 (1.2)	-0.9 (-0.1)
	서울	-5.7 (-1.0)	-2.7 (3.6)	-3.5 (-2.9)	-4.7 (-2.1)	-1.1 (2.5)	0.2 (1.7)	0.9 (-0.3)
고령층 취업자	전국	3.9 (1.1)	6.4 (-3.9)	6.4 (1.0)	5.6 (7.2)	6.6 (5.9)	6.6 (3.3)	5.6 (0.2)
	서울	3.2 (1.4)	6.1 (-2.7)	6.3 (-0.6)	6.1 (2.2)	7.7 (3.2)	8.0 (0.9)	5.1 (-1.3)
	55-59세	1.3 (0.5)	-1.6 (-2.3)	-2.3 (-1.0)	1.6 (3.0)	1.9 (2.3)	4.2 (2.2)	0.4 (-3.2)
	60세 이상	4.8 (2.1)	12.8 (-3.1)	13.8 (-0.2)	9.9 (1.7)	12.7 (3.6)	11.2 (0.0)	8.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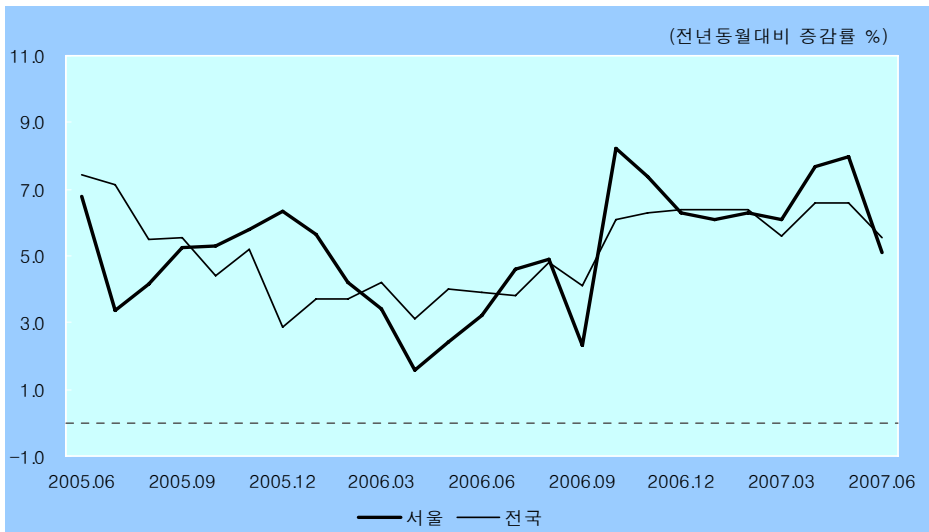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6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4%)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0%), 제조업(14.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9%), 건설업(8.4%)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4.3%)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5.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6.9%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에 비해 2.0%p 축소됨

####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 6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1%), 서비스·판매 종사자(23.8%), 사무종사자(16.0%) 순임
- 전년동월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3%)와 서비스·판매 종사자(-8.8%)를 제외하고, 사무종사자(6.7%)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7.1%)는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8.8%)으로 감소함

####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 6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7% (366만2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3%(130만9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5%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9만6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4.5%(6만2천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의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큰폭으로 확대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3.3%)와 임시근로자(-6.9%)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6.8% 감소한 반면, 자영업주는 4.1%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별	· 제조업	-7.9 (-2.5)	-4.3 (0.8)	-8.5 (-3.2)	-11.1 (-1.0)	-6.2 (2.3)	-7.0 (-0.5)	-5.0 (-0.4)
	SOC 및 기타서비스업	1.4 (0.6)	0.6 (-0.6)	1.2 (-0.5)	2.1 (1.0)	1.7 (1.0)	2.6 (1.1)	1.9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7 (1.4)	4.5 (0.1)	5.3 (0.2)	6.7 (1.7)	6.0 (1.5)	8.8 (1.7)	9.2 (1.7)
	· 도소매·음식숙박	1.1 (1.7)	-2.6 (-2.4)	-3.4 (-2.0)	-2.2 (0.4)	-4.0 (-1.8)	-5.1 (-0.3)	-6.9 (-0.2)
	· 전기·운수·통신·금융	-0.8 (-2.1)	-0.1 (1.5)	0.9 (-0.8)	-1.3 (-4.2)	3.4 (5.6)	4.1 (3.0)	4.3 (-1.9)
	· 건설업	-3.7 (-2.8)	-3.9 (0.2)	0.2 (2.2)	1.5 (7.1)	0.4 (2.2)	0.5 (0.1)	-2.0 (-5.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 (-0.2)	3.0 (1.6)	4.1 (0.7)	1.9 (0.0)	1.7 (1.5)	2.8 (0.5)	7.1 (4.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4 (-4.0)	-2.3 (-0.2)	-0.6 (-2.2)	-1.4 (1.3)	-1.7 (2.2)	-1.5 (1.1)	-0.3 (-2.9)
	서비스·판매종사자	2.4 (8.2)	-2.1 (-4.0)	-5.1 (-3.7)	-1.2 (2.9)	-0.7 (-1.0)	0.7 (0.1)	-8.8 (-2.1)
	사무종사자	-2.1 (-3.7)	0.5 (1.5)	-0.6 (-2.2)	0.4 (-1.9)	4.0 (2.2)	2.9 (1.8)	6.7 (-0.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0.0 (-1.4)	2.2 (1.3)	1.8 (-1.0)	1.0 (0.2)	1.8 (1.7)	1.9 (0.9)	2.7 (-0.6)
	비임금근로자	0.2 (4.5)	-6.4 (-4.9)	-5.8 (-0.6)	-2.6 (2.4)	-3.3 (-0.3)	-1.2 (0.5)	-4.5 (1.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6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 6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2%(실업자 77만7천명)로 전월과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실업자 51만4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6%(실업자 26만3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1.8%, 고졸은 3.7%, 대졸 이상은 3.5%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서울의 실업률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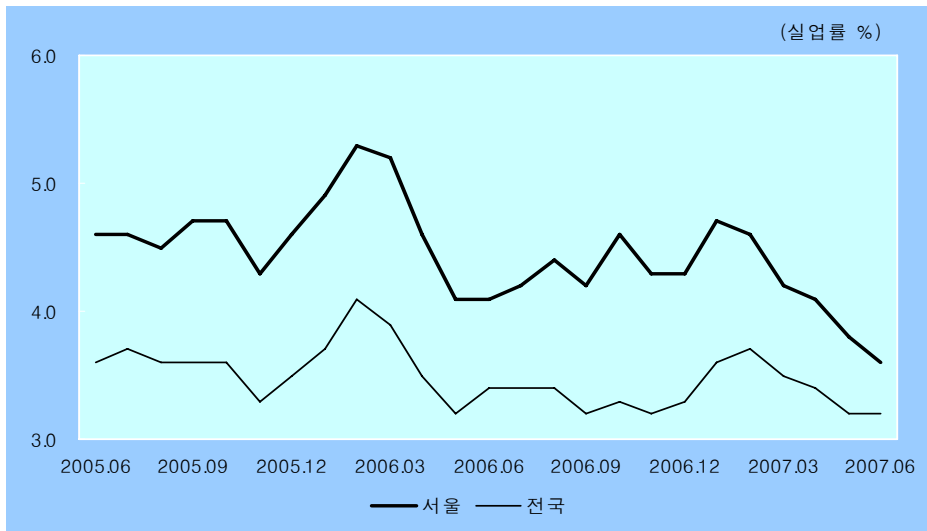
- 6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3.6%(실업자 18만8천명)임
- 6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4%p)는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6월 평균 실업률 4.3% 보다 0.7%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 여자는 2.9%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p, 여자는 0.9%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0.9%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3%p 낮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2월과 3월의 보합을 보인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1.2%p로 전월(0.7%p)에 비해 확대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3.4	3.6	3.7	3.5	3.4	3.2	3.2	
서울	4.1	4.7	4.6	4.2	4.1	3.8	3.6	
성 별	남자	4.3	5.6	5.0	4.6	4.8	4.1	4.1
	여자	3.8	3.5	4.0	3.6	3.2	3.4	2.9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5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 전국의 건설수주액 소폭 증가

- 5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963억 원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수주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2%의 낮은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15.6%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 6.8%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108.5% 증가한 반면에, 건축부문은 12.2% 감소함

## ■ 서울의 건설수주액 소폭 감소

- 5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2,77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8.0%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및 재개발주택, 관공서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95.6%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22.9%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6.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5.7% 감소하였으며, 2.9%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518.6% 증가함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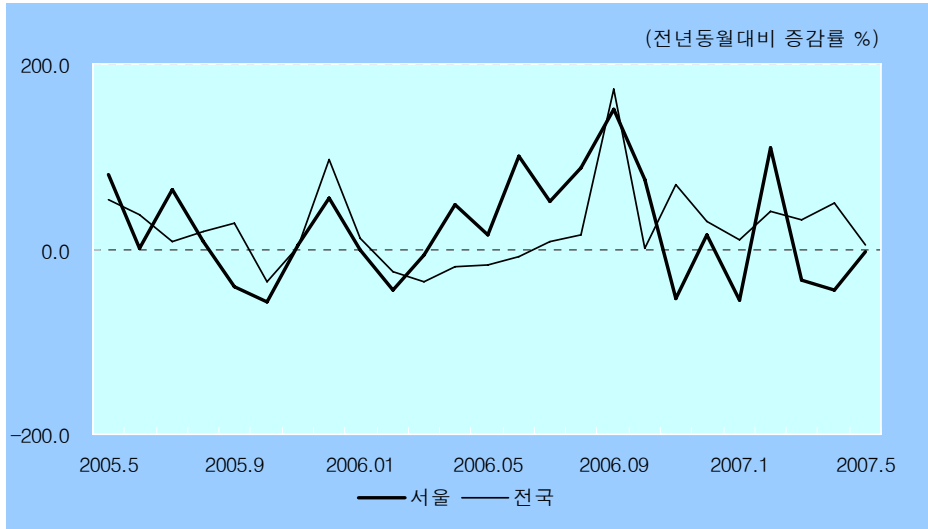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6,743.8	6,411.1	6,325.5	7,941.9	7,840.6	7,096.3	5.2	(-9.5)	
서울	1,314.9	421.6	859.3	765.1	981.2	1,277.0	-2.9	(30.1)	
발주자별	공공	362.1	31.3	99.5	162.0	178.7	15.8	-95.6	(-91.2)
	민간	952.7	390.2	759.8	603.1	802.5	1,171.3	22.9	(46.0)
공종별	건축	1,308.8	407.7	815.4	654.1	939.8	1,233.6	-5.7	(31.3)
	토목	5.9	13.6	36.5	103.2	35.4	36.5	518.6	(3.1)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6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4,508,340㎡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122.8%)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아파트(91.3%)와 단독(12.8%)의 신축허가면적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6월 대비 69.7%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용(46.8%)과 기타(36.3%)는 증가하고, 공업용(92.3%), 문교 및 사회(56.2%)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3.1% 증가함
- 2007년 6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중구(2,188,558㎡)로 상점이 1,320,777㎡를 차지함
- 아파트 신축허가면적은 강서구가 21,23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m<sup>2</sup>,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	3,831,962	536,251	463,808	306,466	5,219,668	4,508,340	17.7	(-13.6)	
주거용	소계	576,603	46,534	140,262	95,525	304,444	174,993	-69.7	(-42.5)
	단독	17,055	4,008	5,631	5,046	15,399	14,868	-12.8	(-3.4)
	연립	51,566	41,498	96,209	68,718	91,656	114,876	122.8	(25.3)
	아파트	507,982	1,028	38,421	8,706	196,135	44,101	-91.3	(-77.5)
비주거용	소계	3,255,359	489,717	323,546	210,940	4,915,224	4,333,347	33.1	(-11.8)
	상업	2,659,030	76,217	160,171	103,336	4,298,279	3,903,277	46.8	(-9.2)
	공업	21,392	0	125,957	84,899	89,650	1,638	-92.3	(-98.2)
	문교/사회	383,786	412,534	28,292	22,557	465,762	167,979	-56.2	(-63.9)
	기타	191,151	966	9,126	148	46,974	260,453	36.3	(454.5)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6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보합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로 보합을 나타냄
- 계절적 요인과 정부규제정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월대비 동일한 반면, 단독주택이 0.2%, 연립주택이 0.5%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6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상승폭이 5월에 비해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2%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에 비해 소폭(0.1%p) 확대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2% 상승한 반면, 강남은 0.1% 하락하여 강북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강남은 4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짐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아파트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0.5	0.9	0.4	0.2	0.1	0.0	0.1 (9.3)	
서울	0.7	1.5	0.4	0.4	0.2	0.1	0.3 (14.9)	
아파트	0.6	1.8	0.3	0.2	0.0	-0.2	0.1 (16.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5	2.0	0.6	0.6	0.5	0.1	0.2 (20.5)
	강남	0.7	1.1	0.2	0.2	-0.3	-0.4	-0.1 (13.5)

주: 전월대비 증감률, (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용산구, 중랑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8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2개 구(용산구와 중랑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상회함
- 용산구(2.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중랑구(0.8%), 도봉구(0.5%), 동대문구(0.5%), 종로구(0.5%), 서대문구(0.4%), 은평구(0.4%), 중구(0.4%)의 순임
- 반면 노원구(0.2%), 성동구(0.0%), 광진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관악구, 강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0.6%)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하회함
- 동작구(-0.1%), 서초구(-0.1%), 송파구(-0.1%), 양천구(-0.1%)는 전월에 비해 하락함
- 송파구, 양천구, 서초구는 지난달에 이어 전월비 하락세가 지속됨

###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로 전월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강북은 0.2% 상승한 반면, 강남은 0.1% 하락하여 강북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강남은 4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짐
- 구별로 보면 용산구(0.9%), 도봉구(0.5%), 동대문구(0.4%), 종로구(0.4%), 중랑구(0.4%), 강북구(0.3%), 노원구(0.3%), 성북구(0.2%), 은평구(0.2%), 관악구(0.2%), 금천구(0.2%)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마포구(-0.1%), 강남구(-0.1%), 강동구(-0.1%), 서초구(-0.1%), 영등포구(-0.1%), 광진구(-0.2%), 송파구(-0.2%), 양천구(-0.3%)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한 1,736만원으로 지난달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492만원), 서초구(2759만원), 송파구(2544만원), 용산구(2327만원), 양천구(2132만원), 강동구(1910만원), 광진구(1819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노원구(989만원), 도봉구(943만원), 강북구(932만원), 은평구(919만원), 중랑구(910만원), 금천구(886만원)임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6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보합

- 6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0% 로 보합을 나타냄
-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사철 경과로 수요가 감소하여 전세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는 더욱 한산해져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남
- 6월은 장마철 비수기로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22년 평균 6월 변동률(-0.2%)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6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월비 상승폭이 전월에 이어 6월에도 소폭(0.1%)에 그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2% 하락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은 0.3%, 단독주택은 0.2%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0%로 보합을 보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0.1	0.4	0.3	0.4	0.4	0.1	0.0	(5.4)	
서울	0.2	0.5	0.4	0.6	0.5	0.1	0.1	(8.0)	
아파트	0.2	0.7	0.4	0.6	0.4	-0.1	0.0	(8.0)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4	0.6	0.4	1.0	0.8	0.1	0.1	(10.1)
	강남	0.1	0.5	0.4	0.3	0.2	-0.2	-0.2	(6.5)

주: ,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광진구, 중랑구, 관악구,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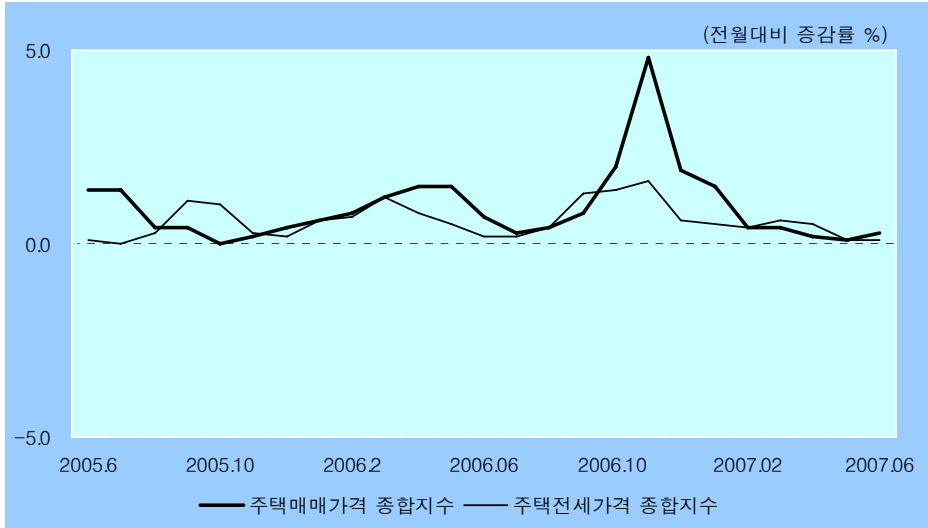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광진구(0.5%)와 중랑구(0.5%)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관악구(0.4%), 은평구(0.3%), 중구(0.3%), 도봉구(0.2%), 금천구(0.2%), 영등포구(0.2%)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1%)을 상회함
- 강동구(-0.1%), 양천구(-0.1%), 강서구(-0.2%), 송파구(-0.2%)는 하락세를 나타냄

### ■ 아파트 전세가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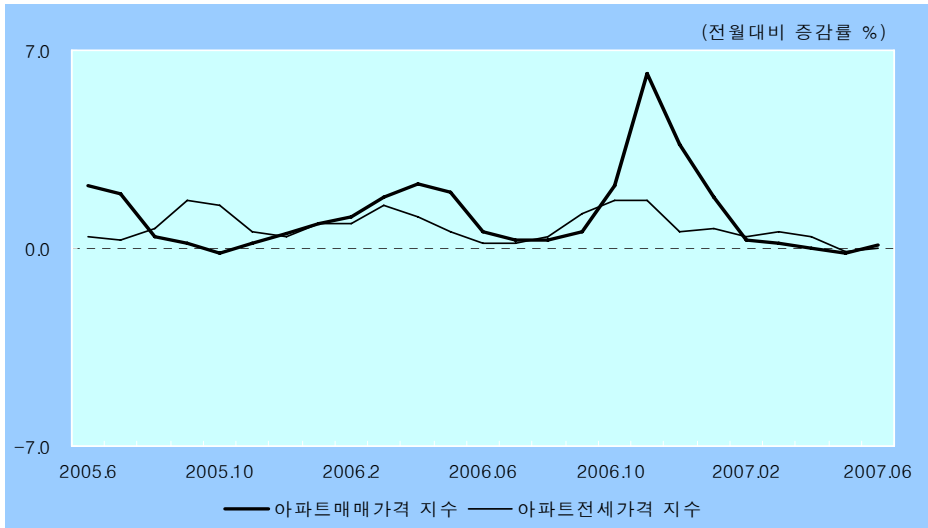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2% 하락함
- 구별로는 중랑구(0.7%), 은평구(0.6%), 관악구(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금천구(0.3%), 강북구(0.2%), 도봉구(0.2%), 동대문구(0.2%), 종로구(0.2%), 동작구(0.2%), 노원구(0.1%), 서대문구(0.1%)에서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보이고, 성동구(0.0%), 용산구(0.0%), 중구(0.0%), 구로구(0.0%)에서는 보합을 보임
- 반면 강남구(-0.4%), 강서구(-0.3%), 성북구(-0.3%), 송파구(-0.2%), 강동구(-0.2%), 영등포구(-0.1%), 양천구(-0.1%), 서초구(-0.1%), 마포구(-0.1%), 광진구(-0.1%)는 전월 대비 하락함
- 4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620만원으로 강남구(975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28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2007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1%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6%를 11.5%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 5월 11.4%p)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6%, 강남은 37.7%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됨
- 지난 11월 처음 30%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과 동일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6월중 KOSPI 지수 계속되는 상승세

##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

- 6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09%p 상승한 5.26%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됨
- 이는 미국 금리 상승,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함
- 금리인상 기대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축소 조치 등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저가 매수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축소됨

## ■ CD(91일) 유통수익률 하락

- 6월말 CD 유통수익률은 5.04%를 유지하다가 수요 증가 등으로 하순 들어 5%로 하락함
- 6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52%로, 전월대비 0.04%p 하락함

## ■ 장·단기 금리차 확대

- 6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의 상승과 콜금리의 하락이 맞물려 확대됨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 KOSPI 지수 계속되는 사상 최고치 경신

- 6월중 KOSPI 지수는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의 지속, 북핵리스크 완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며 한때 1,800p를 돌파함(1,807.9p, 6.19일)
-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등 글로벌 증시의 조정, 증권사 개인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월 후반 다소 조정되어 1,743.6p로 마감함
- KOSDAQ 지수도 한때 800p를 상회하였으나(820.0p, 6.19일), 신용융자 규제에 따른 조정으로 779.7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하락

- 6월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및 조선업 수주호조 영향으로 923원대로 소폭 하락함
- 월 초반 미국 무역적자 감소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영향으로 932원대(6.11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월 중반 이후 수출업체 제고물량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약세 영향 등으로 점차 하락하여 월말에는 6월중 가장 낮은 수준인 923원대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리	국고채(3년)	4.92	4.86	4.76	5.05	5.17	5.26	0.09
	CD(91일물)	4.59	4.94	4.94	5.00	5.06	5.00	-0.06
	콜금리(1일)	4.21	4.55	4.61	4.88	4.56	4.52	-0.04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71	0.31	0.15	0.17	0.61	0.74	0.13
주가	KOSPI <sup>2)</sup>	1,295.2	1,417.3	1,452.6	1,542.2	1,700.9	1,743.6	42.7
	KOSDAQ <sup>2)</sup>	590.7	600.9	649.0	675.9	747.9	778.7	30.8
환율 (W/US\$) <sup>2)</sup>		948.9	941.8	940.9	930.8	929.9	923.8	-6.1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8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됨
- 주택담보대출은 집담대출을 중심으로 0.7조원 증가로 전환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앞 학자금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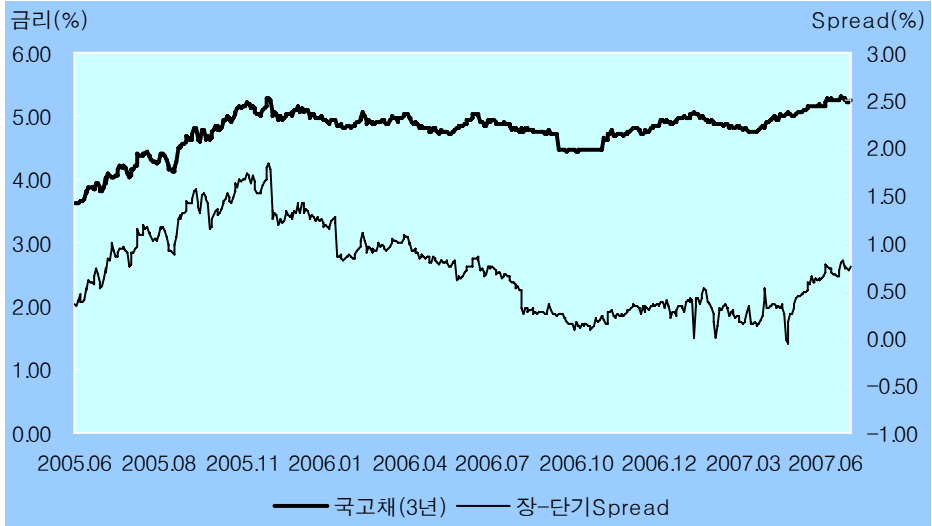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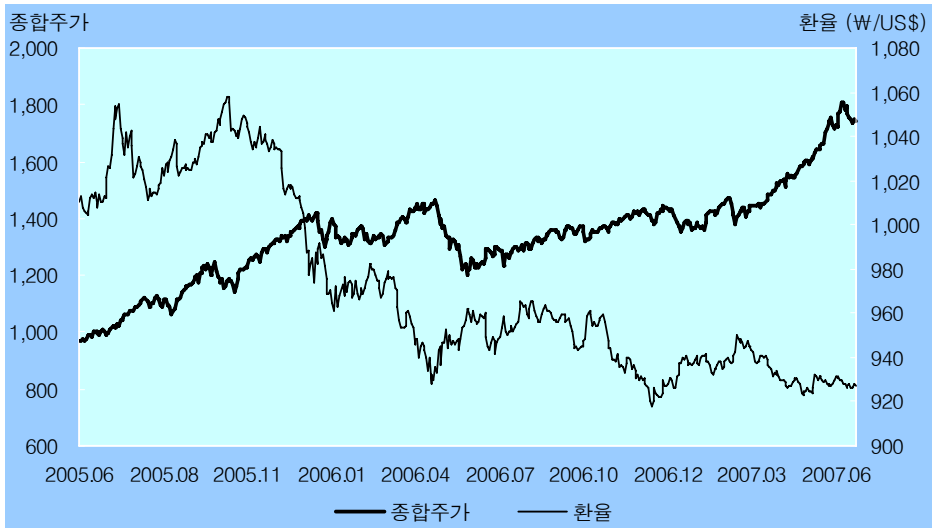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6월	3월	4월	5월	6월	2007년		
							5월	6월	
가계대출 <sup>1)</sup>	40.9	4.3	0.7	1.4	0.2	0.8	349.6	350.4	0.23
주택담보대출 <sup>2)</sup>	26.8	2.1	0.0	0.0	-1.2	0.7	217.0	217.8	0.3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2.2	0.7	1.3	1.4	0.0	130.9	130.9	0.0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감소

- 5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67조 3,192억원으로, 전월대비 11조 4,139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4월 증가액: 15조 2,879억원)이 감소함
-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74조 6,257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4,606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7,863억원)보다 감소함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증감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예금은행	645,478.6	708,048.2	717,066.5	728,294.8	735,674.4	7,379.6
	비은행기관	197,916.4	221,690.1	223,550.9	227,610.5	231,644.8	4,034.3
	합계	843,395.0	929,738.3	940,617.4	955,905.3	967,319.2	11,413.9
서울	예금은행	271,800.9	291,432.1	295,805.6	301,454.8	304,590.3	3,135.5
	비은행기관	52,259.9	64,338.3	65,573.2	67,710.3	70,035.4	2,325.1
	합계	324,060.8	355,770.4	361,378.8	369,165.1	374,625.7	5,460.6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5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감소

- 5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에 비해 0.3%p 감소한 56.1%임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83.6	83.9	84.1	85.0	84.6	0.4
서울	57.5	55.1	55.6	56.4	56.1	-0.3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6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6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727개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17.5%)과 서비스업(6.5%)이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15.6%)은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4.4%, 제조업 21.5%, 건설 및 설비업 13.2%를 차지함

####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6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5.3%(89개) 증가한 1,781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7.7%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48.6%)과 건설 및 설비업(17.4%)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소폭(-0.6%) 감소함

####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413개로 전월대비 0.6%(-8개)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통신업(600.0%), 음식 및 숙박업(33.3%), 교육서비스(21.2%)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4.0%)보다 낮은 79.5%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201	4,932	4,576	4,511	4,727	216	4.8	526	10.7
서울	1,691	1,879	1,764	1,692	1,781	89	5.3	90	4.8
서비스업	1,319	1,586	1,495	1,421	1,413	-8	-0.6	94	5.9
제조업	246	136	140	138	205	67	48.6	-41	-30.1
건설 및 설비업	126	155	128	132	155	23	17.4	29	18.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6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 전국 어음부도율 상승

- 6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73개로, 전월(197개) 보다 24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23개)과 건설 및 설비업(-6개)이 감소하고 서비스업(2개)은 증가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6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1월 이후 변동 없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5개) 보다 8개 증가한 63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8개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32개(142개→110개)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6.4%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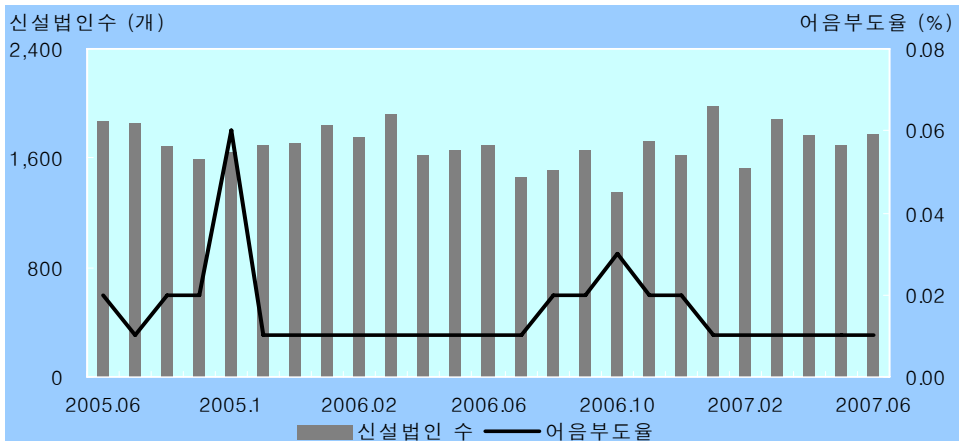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1	0.02	0.02	0.03	0.01	50.0	0.01	100.0
	부도업체 수	210	216	169	197	173	-24	-12.2	-37	-17.1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	0.0	0	0.0
	부도업체 수	76	65	52	55	63	8	14.5	-13	-20.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6월 기준 서울시 특례보증 수요감소로 인한 보증공급 감소

### ■ 건당평균금액 전월수준 유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6월중 2,009건, 38,007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35.4%, 금액 34.0% 감소함
- 정부의 재보증한도 증가액 축소에 따라 소액보증을 중심으로한 제한적 보증 공급,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월대비 공급 건수 및 금액이 다소 감소함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인하여 건당평균금액은 계속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993	1,005	1,863	3,254	3,111	2,009	-1,102	-35.4	1,016	102.3
금액	28,352	33,485	55,239	71,217	57,591	38,007	-19,584	-34.0	9,655	34.1
건당평균금액	28.6	33.3	29.7	21.9	18.5	18.9	0.4	2.2	-9.7	-33.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의 비중 감소

- 6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4.3%p 감소하여 33.5%를 나타낸 반면,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비중이 2.0%p 증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10	691	417	442	249	2,009
비율	10.4	34.4	20.8	22.0	12.4	100
금액	5,883	12,722	6,246	8,695	4,461	38,007
비율	15.5	33.5	16.4	22.9	11.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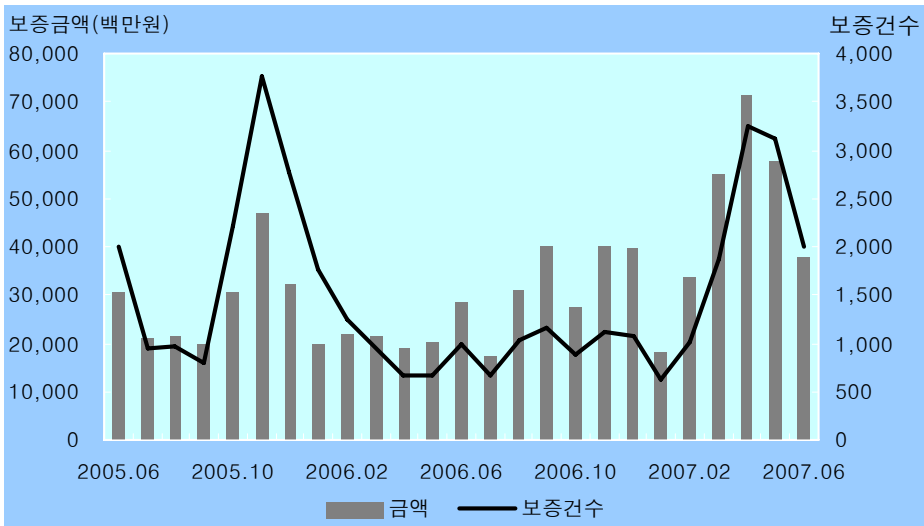
- 소상공인 및 중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3.2%p 증가하며 15.7%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4	2007.05	2007.06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063	2,921	1,873	-1,048
	비율	94.1	93.9	93.2	-0.7
	금액	55,500	45,366	29,375	-15,991
	비율	77.9	78.8	77.3	-1.5
소기업	건수	149	132	91	-41
	비율	4.6	4.2	4.5	0.3
	금액	10,602	7,214	5,960	-1,254
	비율	14.9	12.5	15.7	3.2
중기업	건수	42	58	45	-13
	비율	1.3	1.9	2.3	0.4
	금액	5,115	5,011	2,672	-2,339
	비율	7.2	8.7	7.0	-1.7
합계	건수	3,254	3,111	2,009	-1,102
	비율	100	100	100	0
	금액	71,217	57,591	38,007	-19,58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6월 기준 서울 수출 증가세 다소 둔화, 수입 높은 증가세 지속

■ 전국 수출 사상 최고액 기록

- 6월 전국의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0.5일) 및 전년 기저효과(06년 17.9%)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하여 월별 사상 최고액인 322억 1,140만원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반도체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상반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하여 전년수준(13.8%)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임
-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기의 호조와 함께, 수출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성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활로 모색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함

■ 전국 수입 증가세 둔화

- 6월 전국의 수입은 국제유가의 상대적 안정 및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라 284억 5,34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용도별로는 자본재는 설비투자 회복조짐에 따른 정밀기계, 광학기기, 기계요소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재는 최근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상반기중 수입은 철강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투자 회복 움직임, 환율하락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서울 수출 증가세 다소 둔화

- 6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한 23억 9,470만불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87.6%), 컴퓨터(13.5%), 편직물(12.2%) 등이 증가하고 기타직물(-18.8%), 무선통신기기(-14.5%) 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26.3%), 미국(13.5%), 베트남(6.5%) 등이 증가하고 일본(-15.0%), 홍콩(-3.7%)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증가세 둔화

- 6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7% 증가한 57억 7,170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17.7%), 항공기 및 부품(112.3%), 무선통신기기(51.2%) 등이 증가한 가운데 컴퓨터(-9.9%), 반도체(-3.2%) 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20.2%), 미국(30.9%), 홍콩(77.9%)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7,948.8	26,226	30,391	29,945.2	31,056.9	32,211.4	4,262.6	15.3	1,154.5	3.7
	수입	26,023.5	25,315	29,232	29,454.3	29,749.0	28,453.4	2,429.9	9.3	-1,295.6	-4.4
서울	수출	2,226.1	1,825	2,328	2,245.9	2,289.7	2,394.7	168.6	7.6	105.0	4.6
	수입	4,986.6	4,797	5,473	5,898.7	5,979.0	5,771.7	785.1	15.7	-207.3	-3.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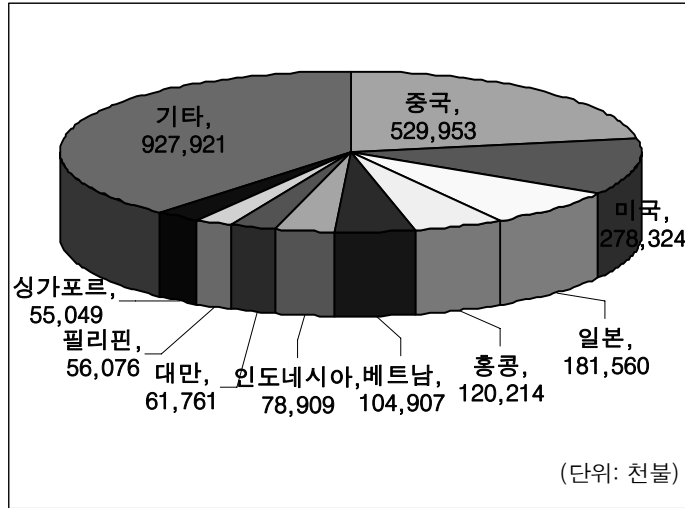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6월		2006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394,674	7.6	2,226,059	7.7
1	편직물	198,619	12.2	177,038	23
2	반도체	150,361	-11.9	170,722	42.4
3	의류	127,635	0.1	127,488	-12.2
4	자동차부품	107,275	87.6	57,192	3
5	고무제품	99,992	11.8	89,437	28
6	합성수지	97,744	-5.7	103,653	46.6
7	컴퓨터	84,942	13.5	74,852	-13.5
8	인조장섬유직물	82,147	-8	89,297	28.5
9	무선통신기기	73,846	-14.5	86,389	-3.4
10	기타직물	65,404	-18.8	80,500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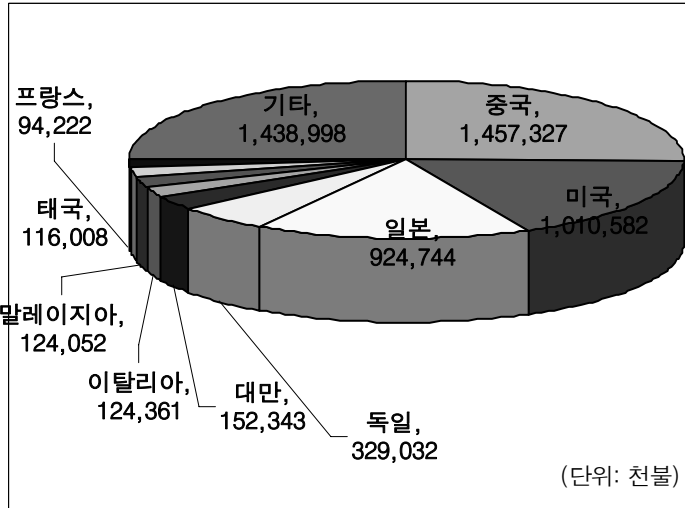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4월		2006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771,669	15.7	4,986,602	14.8
1	항공기및부품	418,120	112.3	196,964	-13.6
2	컴퓨터	393,762	-9.9	437,221	-
3	반도체	371,623	-3.2	383,896	15.1
4	자동차	226,392	18.8	190,611	-16.1
5	의류	183,978	20.5	152,701	-10.5
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71,640	417.7	33,157	-18
7	석유제품	122,971	-9	135,094	8.1
8	알루미늄	121,298	3.1	117,634	16.2
9	무선통신기기	120,526	51.2	79,735	2.7
10	전자응용기기	115,780	13.3	102,146	-20.9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